"스마트워치·앱으로 가족건강 확인"… '커넥티드 케어' 전면에

르포 |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9·헬스 전략 브리핑

수면·활동 등 건강관리 영역 확장
비침습 혈당 측정 기술 개념검증
갤럭시 기기 간 연결 통해 한계 보완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와 삼성 헬스를 활용한 심장 건강 관리를 개인에서 가족으로 넓힌다. 혈압·심전도부터 심장 건강 점수와 생체 징후까지 일상에서 건강 이상을 살피고 부모의 건강 상태와 복약 여부를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커넥티드 케어'를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9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갤럭시 워치9 헬스 브리핑을 열고 갤럭시 워치와 삼성 헬스의 심장 건강 관리 기능과 향후 전략을 소개했다.

최종민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헬스팀 상무는 "삼성 헬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면과 활동, 식이, 마음 건강"이라며 "이들은 모두 심장 건강과 관련돼 있고 생체 징후를 통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갤럭시 워치9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에 탑재된 '심장 건강 점수'는 수면과 활동량, 혈관 스트레스, 체성분 등을 종합 분석해 점수와 실천 가이드를 제공한다.

◆ 개인을 넘어 가족 연결

'커넥티드 케어'는 개인별 건강 인사이트를 기기와 가족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워치가 사용자의 수면을 감지하면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연동해 켜져 있는 조명이나 TV를 끄는 식으로 건강 정보를 일상의 다른 기기까지 연결한다.

이 같은 연결은 가족 간 건강 관리로도 확장된다. 사용자 동의를 전제로 수면과 심박수, 혈압, 혈당, 복약, 생체 징후 등 선택한 정보를 공유해 부모의 건강 상태나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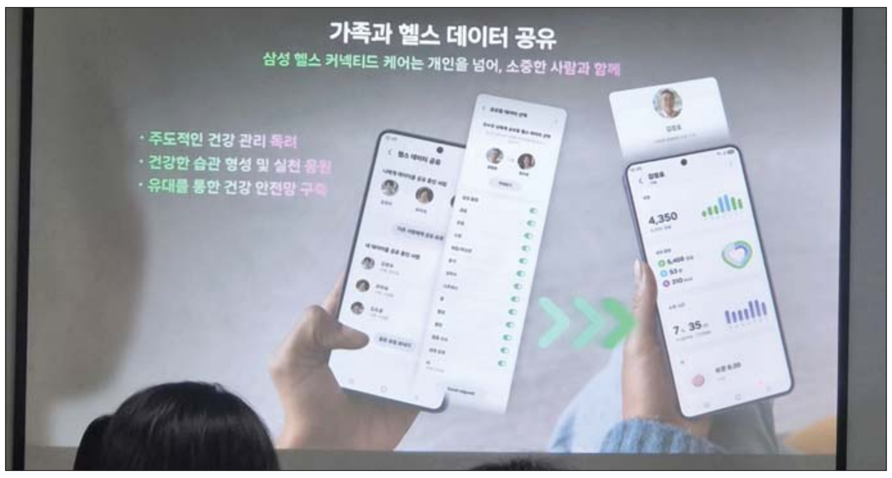
고령화에 맞춰 복약과 건강 기록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삼성 헬스에서는 약물 상호작용이나 알레르기 등 주의 정보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기록도 불러올 수 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헬스팀 최종민 상무가 갤럭시 워치와 삼성 헬스 앱의 향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비침습 혈당 연구 지속… AI·배터리도 고도화

삼성전자는 비침습 혈당 측정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내부 연구팀과 해외 연구소뿐 아니라 외부 기업과도 개념검증(PoC) 등을 진행 중이다.

현재 워치의 헬스 기능은 센서 추가보다 알고리즘 고도화에 무게를 뒀다. 센서 의존성이 크지 않아 관련 기능은 기존 갤럭시 워치에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9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갤럭시 워치9 헬스 브리핑'에서 가족 간 건강 데이터를 공유하는 삼성 헬스의 '헬스 데이터 공유' 기능이 화면에 소개되고 있다. /구남영 기자

알고리즘 고도화에는 인공지능(AI)도 활용한다. 워치의 제한된 메모리와 연산 성능을 고려해 저전력 AI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워치의 한계를 다른 갤럭시 기기와의 연결로 보완하는 것도 주요 방향이다. 최 상무는 "워치 단독보다는 스마트폰과 연계했을 때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버즈와 연동해 운동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기별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갤럭시 링과 워치도 서로 역할을 보완한다. 링은 수면 중 착용 편의성이 높고 워치는 운동·스포츠 활용 범위가 넓다. 최 상무는 "링과 워치를 같이 사용했을 때 센서 정확도가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삼성·LG, 고부가 반도체 기판 시장 정면승부

KPCA Show 2026

삼성전기 2.5D 패키지 기판 등 선봬
LG이노텍 AI 가속기용 FC-BGA 공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인공지능(AI)·서버용 패키지기판과 유리기판 등 차세대 기판 기술을 선보이며 고부가 반도체 기판 시장 공략에 나선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오는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KPCA Show 2026'(국제 반도체 기판 및 첨단 패키징 산업전)에 참가해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삼성전기는 이번 전시에서 ▲2.5D 패키지기판 ▲2.1D 패키지기판 ▲유리기판 ▲자동차용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 ▲초박형 칩스케일패키지(UTCSP) 기판 등을 공개한다.

먼저 AI 가속기용 2.5D 패키지기판에는 대면적·고다층 기판의 휨을 줄이는 기술과 고속 신호 전달, 고밀도 연결 기술 등이 적용됐다. 실리콘 인터포저 없이 반도체 칩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2.1D 패키지기판 기술도 선보인다.

KPCA Show 2026 삼성전기 전시부스. /삼성전기

유리기판 관련 기술도 소개한다. 유리에 미세한 연결 통로를 형성해 금속으로 채우는 기술과 표면 정밀 가공 기술 등을 공개한다.

데이터센터와 모바일, 자율주행용 고부가 패키지기판도 전시한다. UTCSP 기판은 코어리스(Coreless) 구조와 미세 본드 핑거(Bond Finger) 기술을 적용해 기판 두께를 줄였다. 자동차용 패키지기판에는 대면적·고다층화와 미세회로 기술을 비롯해 고온·고습 및 반복적인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뢰성 기술이 적용됐다.

LG이노텍은 AI 가속기용 FC-BGA를 처음 공개한다. 제품은 한 변의 길이가 100㎜를 넘는 대면적 기판으로 초미세 회로 구현과 고다층화 기술을 적용했다.

LG이노텍 전시부스 조감도. /LG이노텍

가로·세로 85㎜ 크기의 대면적 FC-BGA와 이보다 면적을 약 40% 확대한 초대면적 제품 샘플도 선보인다. 기판 내부에 칩을 넣어 연결 거리를 줄이는 칩 임베딩(Chip Embedding) 기술도 공개한다.

2028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유리기판 기술도 공개한다. 기판 내부 코어(Core)층을 유리로 대체해 기판의 휨과 회로 왜곡을 줄이는 기술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최윤범 회장, 감사위원 선임 표 대결 '승리'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현 경영진 이사회 우위 강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측과의 표 대결에서 승리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핵심 안건인 감사위원 선임에서 고려아연 측 후보가 출석 주주의 81% 이상 찬성을 얻으면서 이사회 주도권을 지켜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주요 표 대결에서 현 경영진이 다시 한 번 우위를 확인한 셈이다.

고려아연은 9일 서울 몬드리안 호텔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독립이사 4명과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독립이사 선임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형규·서은숙 후보와 MBK·영풍 측 후보인 이준봉·심혜섭 후보가 모두 선임됐다.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 주총의 승부처인 감사위원 선임에서 승기를 잡았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후보는 출석 주주의 81% 이상 찬성을 얻으며 선임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측은 독립이사 2명과 감사위원 1명 등 총 3명의 이사 선임에 성공했다.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존 고려아연 측 9명, MBK·영풍 측 5명에서 고려아연 측 12명, MBK·영풍 측 7명으로 재편됐다.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사회 내 현 경영진 측 우위는 한층 강화됐다.

한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이날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해 주주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감사위원 선임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추천 이사가 총 7명으로 늘어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오션, 태국 '차세대 호위함 사업' 최종계약 협상

13년만에 해외군함 신조 수출 기대

한화오션이 태국 차세대 호위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오르며 13년 만의 해외 군함 신조 수출 재개에 한발 다가섰다. 2030년 특수선 매출 4조원을 목표로 해외 시장을 넓히는 가운데 태국에서 결실을 앞두게 됐다.

한화오션은 태국 왕립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 절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기술 사양과 사업 범위 등 세부 조건을 조율한 뒤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호위함 1척 건조와 통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해 167억3000만바트(약 6833억원)다. 한화오션을 비롯해 스페인·싱가포르·튀르키예 업체들이 수주 경쟁을 벌였다.

한화오션은 전신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3년 수주해 2018년 인도한 태국 해군 기함 '푸미폰 아둔야뎃'함을 발전시킨 '오션-40F(OCEAN-40F)'를 제안했다. 기존 함정 운용 경험과 축적된 건조 기술력을 앞세웠다.

이번 선정은 한화오션이 특수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나왔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3년 발표한 2조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 가운데 9000억원을 특수선 사업에 투입하기로 하고 생산시설 확충에 나섰다. 특수선 매출 목표는 오는 2030년 4조원, 2035년 5조원이다.

한화오션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태국과 해양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수상함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예은 기자 dhaledhale@

가온전선, 캐나다 공공 전력시장 첫 진출

북미 사업, 민간 중심에서 공공분야 확장

가온전선이 캐나다 공공 전력시장에 처음 진출해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민간 산업시설에 집중됐던 북미 사업을 공공 전력망 분야로 확대한다.

가온전선은 최근 캐나다 서부 지역의 주요 공공 전력회사에 중전압(MV) 케이블을 공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가온전선의 첫 캐나다 수출이다. 그동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발전소 등 북미 민간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전력 케이블을 공급해 온 가온전선이 공공 전력망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가온전선은 국내 배전케이블 시장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캐나다 공공 전력시장에 진출했다.

가온전선은 이번 캐나다 진출을 계기로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본사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생산법인 LSCUS의 공급망을 연계해 현지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정현 가온전선 대표는 "이번 캐나다 공공 전력망 진출은 북미 사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영역을 넓힌 중요한 이정표"라며 "미국과 캐나다를 아우르는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영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